

전남 서부권

진도에 대규모 수산물 수출산단 조성

오는 2016년 청정 수산물의 중국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산물 수출산단 단지가 진도에 조성된다.

진도군과 중국 장자도 그룹은 29일 현지에서 주한중국대사관 주장정 공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동진 진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단지 기공식을 열었다.

〈사진〉 군내면 나리 일대 9만3045㎡ 부지에 들어설 수출단지에는 수산물 가공공장, 전복 물류센터, 해상 종묘 배양장 등의 시설이 갖춰진다. 중국 장자도 그룹이 1차로 11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6년까지 조성한다.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진도의 해산, 전복 등 청정 수산물의 중국 수출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

중국 장자도 그룹 1100억원 투자 2016년 완공

수산물 가공공장·전복 물류센터 등 시설 갖춰



해산산업의 경우 장자도그룹 한국(주)이 조공하고 조도면 마을 어업인들이 해산 어장을 관리하는 한편 해산 종묘생산 및 중간 육성, 해산

씨 뿌림을 통한 조도면 어촌계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북은 장자도그룹 한국(주)에서 전복(2~3년생) 매입과 전복 계약생산을 통해 활전복 가공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10년 진도군-중국 장자도 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올해 6월 가공공장, 해상종묘 배양장 부지 매입을 진도군 군내면 나리 일원에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중국 최대 민영 수산업그룹인 장자도 그룹은 지난 1958년 설립됐다.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7개소에 지사가 있고 중국 내 16개 성에 260여 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FDA(식품의약품), 인종전문 업체 SGS의 수산물 식품안전 인증(ISO 9001)을 받은 기업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고향생각 주부모임 전남도지회와 (사)농가주부모임 전남연합회, 다문화 이주여성 등 100여명이 29일 지역본부에서 '사랑의 김치'를 담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도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가구 200여명에게 김치를 전달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목포시의회 '간간' 해졌다

예결특위 심의 현지조사 활동 등 심도있게 진행

시정질의회 16명 의원 총출동... 견제 감시 강화

목포시의회(의장 배종범)가 '간간' 해졌다.

201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예결특위의 심의가 역대 예산심 의와는 달리 현지조사활동까지 벌이는 등 심도있고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또 3일 동안 무려 16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시정 질의를 펼친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30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2일부터 12명의 예결특위 위원들이 내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예결특위는 지난 28일 ▲신안주택·빅마트간 도로개설 공사 ▲해인여고 주차장 조성사업 ▲수산물지원센터 ▲육안지구 수변공원 등 5개소에 대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전경선 예결특위 위원장은 "집행

부의 설명과 예산서만 보고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지활동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현지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초선인 최홍림·서미화 여성위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면서 "모처럼 시의회가 견제·감시의 고유 기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시의회는 의원 21명(의장 제외) 가운데 16명의 의원이 출동해 다음달 7일부터 3일 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시정 질문을 펼친다.

7일에는 노경윤·성혜리·최홍림·조성오·정영수 의원이, 이어 10일에는 최일·김영수·이방수·조요한·여인두·백동규 의원이,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서미화·고경석·이구연·오승

원·최기동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는 역대 의회 사상 최대 기록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간간해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보충 자료와 시정질문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겹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일씩 본 업무를 제쳐놓고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무 과중에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예산심의를 '간간'해지면서 주요 현안사업들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시의회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해양문화축제 대폭 바뀐다

시기·방법 전면 재검토

목포시 대표축제인 '해양문화 축제'의 개최시기와 방법 등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동식 목포시 부시장은 29일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 시의회를 방문, 시의원들을 면담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해양문화 축제와 관련 시기·방법 등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 부시장은 "수준 높은 공연과 볼거리만으로는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내부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해양문화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최첨단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 서해 배치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어업지도선 1척이 서해에 배치된다.

서해어업관리단(전남 목포)은 29일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1250t급·사진)를 취항식을 갖고 중국어선 단속 등에 본격 투입했다. '무궁화 2호'는 길이 70m, 폭 12.4m, 최대 17노트(시속 31km)다. 10m급 고속 단속정,

주·야간 감시시스템, 위성항법장치 등 최첨단 장비가 탑재됐다.

지도선은 서해 북방한계선(NLL)부터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불법 중국어선 지도단속 활동 임무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조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김철주 무안군수 5개 학교 고3에 특강

那 발전·미래비전 제시

김철주<사진> 무안군수는 최근 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무안군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특강 진도사'로 모신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안고, 백제고, 해제고, 현경고, 남악고 등 5개 학교에서 67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남악고신도시 무안 성장중심축 위상 정립에 대한 지역개발을 비롯해 농·수·축산업, 관광 체육, 교육 등 4개 분야의 미래 발전 방향 등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들려준다.

군은 최근 대학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애환심과 향후 지역발전의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육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특강을 마련했다. 김철주 군수는 "앞으로 무안 거점고 개교준비와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승달 장학금 확충 등 미래 교육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한국PD연합회(회장 이정식) 소속 프로듀서들이 노화도 전복양식장 현장을 견학하고 있다.

"완도를 느끼고 체험하세요"

PD 40명 초청 팸투어 실시

완도군이 영상홍보를 통해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완도군은 지난 23~25일 3일간 한국PD연합회(회장 이정식) 소속 프로듀서 40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방송PD들은 방문기간 동안 청해진 유적지, 장보고기념관, 청산도, 소안도, 보길도 등 관광명소 탐방은 물론 지역특산물 전복양식장 현장, 어촌현

장, 슬로푸드 음식 등을 체험했다.

특히 군은 완도를 방문한 모든 PD들에게 완도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도군 명예면장'으로 위촉했다.

군은 앞으로 방송작가 협회 등 다방면의 방송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팸투어를 통해 지역 마케팅을 활성화할 나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Advertisement for Hankook Public Auctioneer, featuring real estate and business opportunities.

Advertisement for Namyeong Gangbyeon City, highlighting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modern amenities.

Advertisement for IZ Public Auctioneer,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for sale.

Advertisement for Landpia Public Auctioneer, offering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dvertisement for Gaeon Public Auctioneer, featuring various types of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Public Auctioneer, specializing in hotel and commercial properties.